

잘나가던 제주관광 성장률 0%대

2010~2014년엔 10.2% 성장
 2014~2018년은 0.2%로 추락
 지난 해도 마이너스 예상
 개선책 마련 못해 위기감

제주관광산업 연평균 생산성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나 개선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적 측면에서 제주관광 연평균 생산성 성장률은 10.2%를 기록했으나 2014~2018년에는 0.2%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시장 진입 관광사업체수가 13.2%에서 -3.7%로 감소하고 계속 사업체 (22.0% → 0.0%)의 생산성 성장 기여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 **관련기사 3편**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생산성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지역 관광 사업체의 진입·퇴출은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대체로 타지역 보다 진입률이 높고 퇴출률이 낮은 모습을 보이며 양적 성장을 뒷받침했으나 숙박업은 퇴출에 비해 진입이 크게 나타나 시장의 경쟁도가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매업은 진입과 퇴출이 모두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높은 경쟁수준을 유지한 반면 운수업은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이미 상당한 서비스 공급이 제공돼 진입·퇴출이 모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전세버스 등 계속 관광 사업체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진입 사업체의 기여도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종식이 늦어질수록 올해 제주관광 연평균 생산성 성장률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생산성이 높은 업체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및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진입 사업체의 생산성 성장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방문 관광객수는 2010년 652만명에서 2016년 1585만명으로 6년간 약 2.4배 증가했으나 2017년 1475만명, 2018년 1431만명, 2019년 1528만명, 2020년 1032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코로나 1년... 전통시장 매출 8~39% ↓

제주시, 공설시장·중앙지하도상가 사용료 등 감면 연장

코로나19 상황이 1년 내내 이어진 지난해 제주시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일 매출액과 방문객이 많게는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시행했던 6개 전통시장 사용료와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동문·서문 공설시장과 4개 오일장(제주시·한림·세화·합덕) 등 6개 전통시장 중 5개 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이 7.7~38.6% 감소했다. 매출이 증가한 시장은 세화오일시장 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매출이 줄어든 것은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이 줄어든 영향인데,

서문시장은 일평균 고객 2019년 2110명에서 지난해 1190명으로 43.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시장의 고객과 매출 감소가 뚜렷한 가운데 시는 전통시장과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관련 방역도 연장 지원한다.

6개 공설시장 1500개 점포에 대한 사용료는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50% 감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료 50% 감면에 이은 연장 조치다. 사용료 감면에 따라 상인들은 월 9만2000원정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중앙지하도상가 382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공용관리비 지원

도 연장된다.

지난해 3~12월 추진한 점포 임대료 80% 감면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연장하고, 공용관리비(전기, 상·하수도 사용료)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가 임점상인들의 부담이 점포당 평균 20만원(임대료 17만원, 관리비 3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상설시장은 주 1회, 오일시장은 5일에 1회(장날 전날)씩 공용부분(화장실·통로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중앙지하도상가 전구간(계단·점포·화장실)에 대해서도 매주 1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한리일보 신춘문예 시

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1일 (목) 오후 2시 한라일보 3층 회의실



2021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21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수상자인 신운주 시인, 김규학 시인, 차영일 소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이상국기자

“끝까지 쓰며 좋은 작품으로 증명하겠다”

그들은 “끝까지 쓰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했고, “작품으로 증명해보이겠다”고 했다. 새해 시인으로, 소설가로 문단에 힘차게 발을 디딘 2021 한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들이다.

2021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21일 오후 2시 한라일보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신춘문예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별도 초청자 없이 수상자들만 참석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의 주인공은 시 ‘도서관’으로 당선된 신운주 시인(35, 제주), 시조 ‘폐교’로 당선된 김규학 시인(62, 대구), 소설 ‘떠도는 도시’로 당선자 없는 가작에 선정된 차영일 소설가(48, 울산)였다.

3개 부문 수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차례로 전달한 이윤곤 한라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문학 신인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윤곤 대표이사는 “예년 같으면 성대하게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을 텐데 코로나 시국으로 그렇지 못했다”면서 “코로나로 각박해지

는 세상에 여러분의 글이 매마른 감성을 적실 빗방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인 작가들은 짝막한 수상 소감으로 포부를 알렸다. 신춘문예 수상이라는 무게를 견디고 더 좋은 글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신운주 시인은 “새해에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동안 시를 쓰면서 시를 써도 될까, 내가 그래도 되는 사람일까란 의문을 많이 가졌다. 끝까지 쓰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김규학 시인은 “올해부터는 문학을 그만두고 노랫말을 쓰려고 했

는데 한라일보에서 저를 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즐기겠다. 저를 뽑아준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한라일보에 누가 되지 않도록 멋진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며 기쁨을 나타냈다.

차영일 소설가는 울산, 서울, 광주에서 11명의 ‘시상식 원정대’가 꾸려졌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는 사연을 들려주며 “기적적으로 제 소설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한라일보와 두 심사위원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도록 경건해지겠다. 독하게 더 고독해지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신춘문예는 1989년 창간 사업으로 시작돼 매년 한국 문단을 이끌 신인들을 배출해왔다. 2021 한라일보 신춘문예는 시, 시조, 단편 소설 3개 부문에 걸쳐 약 2000편이 응모했다. 시 257명 1406편, 시조 75명 388편, 소설 166명 176편이 접수됐고 예심과 본심을 통해 당선작을 가려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환경이 밥 먹여 줍니다!

코로나 시대
 이제 진짜 환경이 밥 먹여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2공항 “반대”를 말하는 바로 당신이
 새로운 제주를 만듭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당당히
 “반대”한다고 답해주시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시대를 거쳐 왔습니다.

그 결과 도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불편과 피해만 늘어났습니다.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재산세 증가는 도민들의 피해로 전가됩니다.

제주에 지금 쓰레기와 생활하수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주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관광객 2,500만명을 더 받자는 목적의 성산 제2공항은 개발광풍을 더욱 부채질 할 것입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역습이 바로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를 불러왔습니다. 제주에 지금까지, 경제도 어려운데 ‘환경이 밥 먹여주나?’ 하면서 개발에만 매진했습니다.

이제 진짜 환경이 밥 먹여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환경이 도민복지의 기초입니다. 제대로 된 제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다가오는 도민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의 추진 여부를 도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반대”가 제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민여론조사에서 “반대”를 말하는 우리가 새로운 제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